

컷오프 일주일 앞...민주 당권주자들 표심잡기 분주

중앙위원 투표 70% 당락 좌우
‘지방 돌고 전화 돌리고’ 득표전
97그룹·김민석 단일화 가능성

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위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비경선을 통해 총 8명의 당 대표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 본경선에 들어간다. 당 대표 선출일은 한 달 뒤인 8월 28일이다. 후보 등록 완료와 함께 예비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가지 이재명 상임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분주한 모습이다. 본선행 티켓은 3장이지만, 이 고문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2자리를 놓고 7명이 다투는 형국이다. 저마다 ‘이재명 대항마’를 자임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들은 물론 설훈·김민석 의원도 후보 등록이 무섭게 전국을 돌며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설훈·김민석 의원과 97그룹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전남 당 대표 후보들이 한데 모여 기념 촬영을 하는 당 행사에 불참했는데, 이 역시 중앙위원들과의 사전 약속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수인 이 고문을 빼놓고 보면 예비경선 판세가 안갯속이라는 점도 중앙위원 쟁탈전을 더 치

열하게 하는 요소다. 예비경선 룰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박주민 의원이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내 조직력, 계파별 표 분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막판까지 구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반명(반이재명) 공동 전선’을 형성한 97그룹과 설훈·김민석 의원 간 ‘사전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각계전투 후 합치는 방안이 무거게 쏠린다. 본선 막판에야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컷오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걸러지면 본선 경쟁을 거치면서 결국 대안을 찾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소위 여대명(여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는 있지만 이 고문 역시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다. 일단 중앙위 핵심 구성원인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는데 집중하는 한편 전국에 있는 중앙위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20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당 중앙위원 득표전에 몰두하고 있다.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 향방에 따라 대선전 희비가 엇갈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 7. 20(수) 13:40 / ■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우원식 의원 등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170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민주유공자법’ 제정 재추진

“운동권 셀프보상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

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 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우 의원 역시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가 좌초됐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이 법을 ‘운동권 셀프보상법’이라고 정정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특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

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위원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력 사유화 대가 치를 것”

박홍근, 대표연설서 직격
“불공정 인사가 불행 초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찌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약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법무부, 행안부, 국경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두고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복속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을 겨냥해서는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적 중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다.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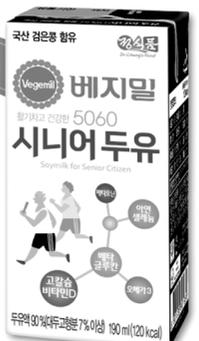
시니어의 여유는 건강에서!

베지밀 5060 시니어두유로 건강을 챙기세요

★신제품 출시★

시니어에 필요한 영양을 한팩에- 하루세끼 건강메뉴

- 뼈 건강 위한 검공, 고칼슘, 비타민D
- 필수 단백질 효율 강화 메티오닌
- 두뇌구성 물질 오메가3
- 건강유지 보호막 베타글루칸 이르기린
- 항산화 영양성분 아연(Zn), 셀레늄(Se)
- 건강한 당 설계 결정과당, 올리고당



1주 분량 | 전국 어디서나 1577-0426 소필 트러스트 www.edaymail.com 1 문외 | 고객센터 080-930-8888, (02)553-8888 www.vegemil.co.kr
 ● 서울-경기: 동북영양소 (03)950-4937 ● 북부영양소 (03)989-9392 ● 남부영양소 (03)209-6535 ● 관서영양소 (03)293-4599 ● 서부영양소 (03)324-2255 ● 안동영양소 (03)275-4248 ● 강원영양소 (03)374-8821
 ● 충청영양소 (042)823-8801 ● 전북영양소 (063)214-5731 ● 전남영양소 (062)941-5001 ● 경북영양소 (053)959-3441 ● 경남영양소 (053)231-6538 ● 광주영양소 (054)715-4331 ● 부산영양소 (051)214-6561